



### '반납' 행태 청산하자



성태용  
건국대 교수  
본지 논설위원

군대에서 배운 것은 제대할 때 모두 반납하고 나온다고 한다. 허긴 군대라는 특수한 집단에서 익힌 행태가 그대로 사회생활에 이어진다면 그것도 큰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런 반납의 행태는 얼마나 큰 손실인가? 모두 다는 아니더라도 소중하게 다음 기간으로 이어져 나가야 할 것들을 잘 챙겨야 발전적인 삶이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이 '반납'이라는 것이 너무도 일반화되어 있는 것 같다. 야당 생활하다 집권당으로 가면 야당의 생활에서 얻은 것은 모두 반납하고... 평생된 시절에 느끼고 실천하리라 다짐했던 것들은 간부급으로 가면 모두 반납하고... 그럼으로써 어떤 개인의 발전에 막자고도 잊혀지는 부분이 생길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로도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다.

그런 반납 행태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예를 불자들에게서 발견하게 된다. 절에 가서 배우고 느꼈던 것들은 절 문을 나오면서 반납하고 만다. 절에 가서는 사홍서원이라는 큰 서원을 세운다. 생노병사의 고통을 여의리라 다짐한다.

그러나 절 문을 나와서 세속 생활로 들어가면 서원은 온데간데없고 세속적 욕망의 추구에 몸을 맡긴다. 생활에서 느끼는 고통과 생노병사의 거룩한(?) 고통은 별개로 여기고, 그러한 고통은 불법의 지혜가 아닌 세속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 한다. 왜 세상을 좀 더 좋게 만드는 일, 내 자신을 발전시키는 일이 사홍서원과 연결되지 못할까? 일상의 고통이 생노병사의 근본 고통의 갈래라는 생각은 하지 않을까?

불자들의 이중생활, 반납의 행태가 청산되는 시점이 바로 진정한 불교가 이 땅에 서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다.

### '만(권)자 모자와 방망이



'만(권)자 모자와 방망이' '만(권)자 모자를 쓴 프 로야구 이승엽 선수가 10월 2일 대구구장에서 56호 홈런을 날려 아시아 신기록을 세웠다. 불자인 이승 엽은 지난 4월말 극심한 타격부진에 빠졌을 때 모자 안쪽에 만 자를 새겨넣은 뒤 차츰 슬럼프에서 벗어났다. 올 시즌 도루왕 이중범 선수도 포스트시즌을 대비해 특수 제작한 방망이 10자 루에 만자를 새겨 넣었다. 자랑스러운 기록처럼 불심도 더욱 깊어지길 기대한다.

### 장군속매

### 절에서 몰래 누드 촬영



배우 이지현이 세계 문화유산인 앙코르와트사원에서 누드 도둑촬영을 했다. 아예 촬영허가신청을 하지 않은 촬영팀은 "누드촬영을 허용할 분위기다"라고, 실제로 여성의 벗은 몸매에 대한 거부 반응이 생각보다 강했기 때문"이라고 변명했다. 그러나 일반 화보 촬영으로 가 장한 채 누드촬영을 한 것이어서 사진이 공개될 경우 국제적 망신과 국가간 마찰을 유발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우리 겨레는 오랫동안 한자를 빌려 우리 언 어를 기록했다. 15세기에 이르러 세종은 '우리 말을 우리말답게 자유롭게 표기할 수 있는 문자', '은 백성이 쉽게 부려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기 위해 결심했다. 1443년 음력 12월에 새 문자를 완성했고, '훈민정음'이라 이름 하였다. 뒤이어 해설서 <훈민정음>을 편찬하여 그것과 함께 1446년 10월 9일에 새 문자를 세상에 반 포하였다.

그러나 한자·한문에 길든 사대부 중에는 훈 민정음을 외면하거나 폄하하는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많았다. 훈민정음이 실용화되고 정보가 공유되면 자신들의 지위가 위협받을 것을 염려 한 이유가 컸다. 연산군 때에는 훈민정음으로 된 수많은 책들이 불살라지기도 하였다.

그런 속에서도 우리 언어와 훈민정음으로 소 설이 생기고, 가사와 시조가 지어졌다. 서민 은 말할 것도 없고, 유학자와 왕비, 임금도 훈민 정음으로 편지를 썼다. 궁궐에는 글씨예술포자 까지 생겨났다. 일부의 표면적인 현상과는 달리, 훈 민정음은 많은 겨레의 가슴과 생활 속 깊이 자 리잡아 갔다.

끝내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기자 뜻 있는 이 들이 조선어 화폐로 모여들었다. 한글과 우리 언어를 가다듬고 지켰다. 피나는 노력의 덕택



### 불자 세상보기

리의도

춘천 교육대학교 교수, 문학박사

## 한글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으로, 포악한 예정 밑에서도 한글과 우리 언 어는 살아 남을 수 있었다.

한글은 이렇게 550여 년을 헤쳐 왔다. 그것은 겨레와 다수의 행복을 위한 투쟁의 길이었다. 그러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아직도 한자 사 대주의가 서성이는 가운데, 서양의 로마자가 한창 기세를 올리고 있다. "A/S, B/C, S/W, V/L, H.P., Fax, S.A.L.E., coffee, ..." 등이 일상에 흘러 넘치고 있다. 또 다른 사대주의의 등장이다.

그것만이 아니다. 컴퓨터와 인터넷 공간에서 는 한글 맞춤법을 무시하거나 파괴하는 현상이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정부부처는 물론 한글교육을 담당하는 교육 인적자원부와 문화관광부 조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국어를 오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문 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국립국어연구원 의 자료에 따르면, 21개 정부부처 홈페이지의 어문규범 실태를 조사한 결과 무려 116곳에서 오류를 발견했다고 한다. 띄어쓰기는 774곳이 잘못 표기됐다. 또 한글 표기를 병기하지 않거나 영어나 한자어만 표기한 예도 많았다.

뿐만 아니라 공영방송의 국어 오용실태도 심

각한 수준이다. 비속어와 극적없는 외래어 사 용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무시와 파괴의 정도도 예상외로 수준이 아니 다. 2001년 12월에 발행된 한 조사 보고서에 따 르면 인터넷 통신에 등장하는 "안녕하세요"의 표기 형태가 "안나세염, 안녕하세염"을 비롯하 여 18개나 더 있다고 한다. 지금은 더 늘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가다가는 한자 읽기보다 어렵 고, 영어보다 더 어려워질지도 모른다.

우리 겨레의 역사는 '정보 공유의 확대' 라는 가치를 추구해 왔다.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한글이다. 한글의 사용을 확대하고 한글 맞춤법을 제정한 것은, 그것이 정보의 공유 와 교류를 원활히 하는 바탕임을 알았기 때문 이다. 국제화라는 명제하에 입만 열면 국적 없 는 영어를 섞어 쓰는 것은 한민족의 글과 말을 망치는 일이다.

오늘날 한글은 어느 때보다 심각한 도전과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21세기와 함께 우리 앞에 펼쳐진 정보·지식 기반 사회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가려면, 이 같은 도전과 문제 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

본문(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 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열린마당 '생태사찰 만들기' 토론회

## 사찰환경문제는 불교정신의 위기



◇9월30일 두레생태기행과 맑고향기행게가 서울 길상사에서 개최 한 '생태사찰 만들기' 토론회 모습.

### 현고스님(조계종 기획실장)

### 스님대상 환경교육 강화해 의식개혁을

불교의 자비실천 사상은 인간해방, 사회공동체, 생명공동체, 가지 갈등해소를 지향한다. 이 가운데 생명공동체 사상은 인간 의 자연에 대한 지배와 자연의 인간에 대한 보복을 지양하고, 인 간과 자연의 화해와 상호작용능력을 키우는 핵심 사상이라 할 수 있다.

최근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불교환경운동은 이같은 생명공동 체 사상을 근간에 두고 있으며, 인간중심주의, 서구 지향주의, 물질 지향주의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 것이다. 특히 종교의 세 속화, 상품화에 대한 반성과 개인주의의 한계를 극복해 생명공 동체를 회복하고 생태질서와 환경권을 보호 받기 위한 자구책

이다. 또 자본주의와 과학기술주의로 빚어지는 환경 파괴와 공 해, 생태계 혼란을 바로 잡고 생명과 물질들 동등시한 오류를 시 정하기 위한 시도인 것이다.

빈곤과 산업화의 시대는 이제 보다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하고 환경과 문화를 중요시하는 시대로 변화되고 있다. 이같은 시점 에서 불교환경운동은 환경권과 문화향수권을 확대하는 움직임 으로 볼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자연과 인간의 화해, 평화를 위 한 것이며, 동시에 자기다움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오늘 주제인 '생태사찰 만들기'는 불교계 내부로부터의 환경 운동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무리한 대형불사와 오페스 등으로 인해 야기됐던 사회적 비난을 해결하는 첫 걸음인 것이다. 사찰 스스로 친환경적인 불사를 통해 자연과 더불어 존재하는 사찰 을 가꾸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스님들의 의식 수준은 그리 높지 못하다. 따라서 스님들에 대한 환경교육은 의식개혁을 위해 대단히 중 요하다. 이를 통해 의식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사찰 을 자연과 함께하는 사찰로 가꾸어 나가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 을 것이다.

### 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 소장)

### 국책사업·불사, 친환경적으로 시행돼야

전통적으로 사찰은 수행적인 동시에 숲을 지키는 산막이었으 며, 출가자 또한 숲을 지키는 전령사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다. 숲을 위한 사찰과 출가자들의 노력은 이 땅의 자연을 지키는 데 크게 공헌해 왔다.

두레생태기행과 맑고향기행게는 9월 30일 서울 길상사서 서 '숲과 함께 하는 생태사찰 만들기'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 최했다. 30여명의 불교환경 운동가가 참석한 이날 토론회는 조계종 기획실장 현고스님의 '불교와 생태환경'을 주제로 한 강연과 김재일 사찰생태연구소 소장의 '사찰생태 현황'에 대 한 발제,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정리=박병명 기자>

그러나 최근 사찰의 수행환경과 자연환경에 직접 영향을 미 치는 정부의 국책사업이 충분한 평가나 국론형성 과정을 거치 지 않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되어 국론분열 현상까지 보이 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사찰의 자연환경이 지자체 의 이윤추구의 희생양이 되어 곳곳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 나 불교계도 개발과정에서 초기에 대응하지 못하고 개발이 거 의마무리되는 단계에 이르러서야 대응에 나서는 소모전을 펼치 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따라서 정부, 지자체는 사찰 주변의 개발을 친환경적으로 해 야 하며, 사찰도 불사를 친환경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사찰의 자 연환경 문제는 엄밀하게 말하면 자연환경의 위기가리라 보다는 불교정신의 위기이다.

자연환경은 스스로 무너지는 법이 없다. 승가의 청정거풍, 재 가자의 수행적 삶의 방식이 먼저 허물어지기 때문에 자연이 따 라서 허물어진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사찰인내도와 불사조건도 에 주요 동식을 서식처를 반드시 표기하고, 사찰마다 지표종을 정해 그 지역의 환경조건을 보여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 다.

사찰을 거닐고 싶은 숲이나 산책로를 조성하여 살아있는 생 명의 공간으로 가꾸어야 한다. 사찰조건을 전통에 의거해 생태적 으로 조성·관리, 자연생태계가 살아있는 사찰로 만들어 나가 야 한다. 이를 위해 향이 강하거나 화려한 식물, 외래식물을 심 지 않아야 하며, 일본식이나 서양식 조경을 피해야 한다.

이 외에도 대채 에너지 이용, 주변 계곡 보존, 환경교육 강화, 생태사찰 선정, 전통 문화재 보존, 쓰레기 줄이기 등의 작은 실 천을 통해 누구나 가고 싶은 생태사찰로 가꾸어 나가는데 힘써 야 할 것이다.

## 현정 스님의 우리말 염불참선 그리움의 노래

그리움의 노래 3,692글자 + 선근인연가 824글자 + 부모은중가 996글자 + 불전참회가 623글자 + 회향산회가 752글자를 모두 합해 6,887글자로 한권의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분당 125글자를 염불했습니다. 55분 동안 장엄하고 아름다운 염불의 세계가 펼쳐지면서 한권의 책 6,887글자는 모두 염불에 이프에 녹음되었습니다. 그리움의 노래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법문! 이와 같이 신명나는 염불도 만날 수 있을까요!!

**자식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이 법을 전하세요!**

**테이프에 녹음된 내용**

- 앞면 : 그리움의 노래 - 번뇌망상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부처의 세계가 어떤곳인가를 알게하고 염불참선의 진미를 들려줍니다.
- 뒷면 : (1)선근인연가 - 민족과 국가의 인연에서부터 고향, 이웃 가족의 인연이 맺어지기까지 인연의 고리를 밝혀주는 노래입니다.
- (2)부모은중가 - 부모! 오늘의 우리들은 그 존재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자식이면 눈물없는 들을 수 없는 절절한 은혜의 노래
- (3)불전참회가 - 참회. 그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노래합니다.
- (4)회향산회가 - 참아라! 참아라! 그리고 또 참아라! 부처님은 왜 우리에게 그토록 인욕을 당부하셨을까요? 들어보면 알게됩니다.

● 책+테이프 = 5천원 / 입금온라인 : 우체국 501023-01-000379(금산정사)

※ 단체주문환영. 법보시 하실 분은 주소 알려주시면 직접 우송  
신청전화 (061)843-8822 **금산정사**

## 해인사 가을 차 문화 수련법회 안내

정성스레 달인 차한잔의 색과 향기만큼이나 산사의 가을정취도 그 아름다움을 더해갑니다. 우리가 마시는 차 한잔의 의미는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며 좋은 벗들과의 인연을 이어주기에 매우 소중하다 할 수 있습니다. 1200년 불교문화의 전통이 살아있는 해인사에서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과 함께 차와 불교문화를 배우고 느끼며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차문화 수련법회를 갖고자 합니다.

- ▶ 주 제 : 차와 함께 하는 소중한 인연
- ▶ 참가대상 : 차와 불교문화에 관심있는 분
- ▶ 일 재 : 2003년 10월 18일 오후 2시
- ▶ 회 향 : 2003년 10월 19일 오후 3시
- ▶ 강 사 진 : 여연스님(일지암 암주), 정인오(한서대 교수) 최금자(금정대래원 원장), 정동주(「한국의 차 산림」 저자)
- ▶ 참가인원 : 120명 ▶ 참가비 : 4만원
- ▶ 접수안내 : 055)934-3081, 011-9252-4020 daum카페 검색 "다로경관"
- ▶ 온라인 계좌 : 농협 843174-52-023648(해인사 다경원) ※ 입금후 확인 전화를 해주십시오.
- ▶ 행사내용 : 차문화 강좌, 참선, 산행, 들차회

## 해인사승가대학 다경원